

## 자연과 교감하는 테크놀로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수정

여행에서든, 일상에서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건, 장소,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언어나 문화가 다른 낯선 공간에서 경험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감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는 특히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낯선 장소에 머무르며 작업을 하게 되는 ‘레지던시’는 참여 예술가들이 새로운 감각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도시가 아닌 파리 근교에 위치한 고암 이응노 레지던시는 단순히 대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에 위치해 있고, 번잡한 도심이 아닌 자연 속에 있어서 조용히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지점은 바로 고암 이응노라는 선배 예술가의 작품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고암의 예술적 동반자였던 박인경 명예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필자 역시 10여 년 전, 먼저 보쉬르센에서 고암의 서도 작품을 정리하면서 엄청난 작업량과 규모에 놀랐었고, 다음으로 박인경 명예관장님께서 들려줬던 옛 이야기 속에서 예술에 대한 두 분의 순수한 열정과 의지에 큰 감명을 받았었기에 이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멋진 경험이 될 것인가를 감히 상상할 수 있었다

박정선 작가는 대학에서 조소를 공부하고, 독일 유학 이후 꽤 잘 알려진 영화의 조감독으로 활동하는 한편, 비디오 및 설치 작가로 활동했다. 지난 2007년 <모자이크시티>전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붐이 일면서 도심 개발이 한창인 대전 시내의 폐가를 소재로 한 영상 작업을 통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변해가는 도시의 풍경, 그리고 사라져간 삶의 흔적들을 시적인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개발논리 앞에서 사라져가는 삶의 터전에 대한 시선은 비판적이면서도 따뜻했다. 과거의 작업이 영상의 미학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된 이후로는 영상을 넘어서 공감각적인 연출로 관심이 확장되었다. 고암 이응노에 대한 작업을 제작하면서, 그녀가 주목한 것은 대나무 숲이다. 고암은 대나무를 즐겨 그렸었고, 바람 부는 대나무숲을 보고 자신의 그림이 관념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일화가 있다. 박정선은 이에 영감을 받아 이응노의 대숲을 모티브로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 <바람부는 대나무숲>을 선보였다. 고암이 관념적인 것을 넘어선 회화를 지향했다면, 박정선은 시각을 넘어서 신체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공감각적 대숲을 구성해냈다. 소마미술관에 전시된 <얼음 위에서>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서는 이미지만큼 소리가 중요한 표현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작가의 관심사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상미학을 구현하는 비디오아티스트로서 새롭게 기술적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인 만큼 박정선이 고암 이응노의 레지던시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가 작업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기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3개월의 레지던시를 끝낸 후 그가 발표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는 일시적인 유행과 상관 없이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자신이 바라는 예술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작가로서의 박정선의 장점은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는 찬찬히 대상을 살펴보고, 그 대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담아낸다는 점이다. 과거 영상 작품 속에서 폐가의 남겨진 물건들과 그 속에 담긴 세월들이 관객에게 울림을 전해주듯,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숨기고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작가이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서는 물이 흐르는 영상 옆으로 두 그루의 낮은 나무가 서 있다. 나무는 잎을 피우지 못한 채 말라 있는데, 한 그루의 나무에는 투명한 실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 다른 한 그루의 나무에는 파리

에서 열린 만신 김금화의 굿 공연에서 받은 작은 부적과 종이로 만든 조화가 걸려 있고, 색색의 실들이 늘어트려져 있다. 햇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영상 옆의 두 그루 나무는 굵이굵이 센 강의 지류가 흐르는 보쉬르센에 있는 두 명의 예술가, 고암 이응노와 박인경 명예관장님을 연상시킨다. 섬세하게 주위를 살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작가인 만큼 박정선은 오직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실천을 멈추지 않았던 선배 예술가의 삶의 흔적을 지켜보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에게 오래 곱씹어 생각할 거리를 주었을 것이다. 가르침은 말이나 글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선배의 가르침이 된다. 고암 이응노레지던스는 그 자체로 예술가의 삶에 대한 커다란 배움을 주는 감동의 공간이고, 주의 깊게 보고 듣는 후배인 박정선은 그곳에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한 시간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 Technology interactive with Nature

Lee Soo Jeong Curator of MMCA

The places, events, and people that we encounter in our ordinary days or on our journey affect us in various ways. Experiencing a different language or culture in a new place particularly can put a new perspective on life, and to an artist, it can inspire. Located on the outskirts of Paris, the Residence building is a quiet space surrounded by a beautiful landscape where the residents can concentrate on their works free from distractions. The Residence artists from both 2014 and 2015 seemed to take inspiration from this new environment. Additionally, staying near Park Inkyeong, Lee Ungno's wife as well as his artistic companion, would be a special experience for them.

Park Jungsun, a sculpture major who studied in Korea and Germany, is a video/installation artist and assistant film director. In 2007, she filmed the changing landscape of downtown Daejeon, focusing on the town's abandoned houses at the height of the city's urban development, when a skyscraper boom swept the city. Presented in 2007's exhibition <Mosaic City>, the video showed how, in befitting the new economic trend, the old downtown changed its landscape at the cost of the traces of the earlier lives that the town had held thus far; the scenes were poetic rather than documentary. Later, while study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KAIST, she joined a team where he participated in creating programming-based interactive works. In 2014, she attended the 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 to exhibit <Windy Bamboo Grove>, an interactive media artwork, which was designed to respond to the movements of the viewer. The work showed her homage to Lee Ungno's art - it takes inspiration from his bamboo painting - as well as her attempt at and interest in new technology. In the changed atmosphere of the art world which has moved away from the technological fever circa 2000, when new technologies were compared to new artistic potentialities, towards one emphasizing the theme or issue an art work is dealing with, her practice seems to be going against the current. However, it may

be read as her persistence in developing her own artistic language without falling to the whims of the art market. Therefore, I had high expectations of her work following the news of her attendance at the Residence. <Oh, mother and sister>, which she showed in <Open Studio> exhibition at the end of the Residence, demonstrates that her art is evolving in its own way towards her artistic ends. One of Park's greatest characteristics as an artist is that she listens rather than just talks to people. She knows how to make things speak for themselves in her work: in the 2007 video mentioned above, she took some old artifacts that remained in abandoned houses and showed how they preserve time in themselves.

<Oh, mother and sister> is an installation with a video of running water in the centre and two tree-forms standing at each end. One of the two trees, looking dried out, is entirely wrapped with transparent threads; the other wears two small paper amulets, paper flowers, and colorful drooping threads. The two tree-forms are seen as the two artists at Vaux-sur-Seine, Park Inkyeong and Lee Ungno, looking at the river slowly meandering. The three-month stay was probably a time for her to find Goam everywhere in the Residence; his touch, his breath, and his spirit. Words and letters are not the only means of teaching. Sometimes, one's life can be a lesson itself.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Lee Ungno Residence in Paris, and the space of the Residence itself, was a classroom for Park Jungsun. She was certainly given a good lesson on her identity as an artist.

출처: 이응노미술관 2014-2015 파리아응노레지던스 보고전